

‘무료 숙박권의 덫’... 보증금 지연에, 위약금 폭탄 피해 급증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

올해 6월까지 전년비 72.1% 증가 계약 해지 시 청약철회 방해 빈번 “법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돼야”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리조트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매한 후, 계약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특히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리조트나 콘도의 이미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이미지.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

된 사례만 총 581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 접수 건이 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신고 건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이었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72.1%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건이다.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관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

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는 최근 3년간 431건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5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사례는 208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 회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권 구매 체결 계약이 사적 계약이다 보니 이를 미리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안정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욱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불완전 계약)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구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역시 언론에 더 상세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불완전 계약을 사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관장 혈당케어 ‘GLPro’ 론칭 신제품 사전예약 진행

정관장이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공식 론칭에 앞서 ‘GLPro 코어’, ‘GLPro 더블컷’ 신제품 2종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전국 정관장 가맹점 및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 매장에서 10월 29일까지 진행하며 사전예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대상인 ‘GLPro 코어’, ‘GLPro 더블컷’은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의 신제품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 05pg)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신원성 기자

LF몰 ‘가족의 발견’ 기획전 일상 속 에피소드 공개

생활문화기업 LF의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가족의 발견’ 기획전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의 발견’ 기획전은 브랜드 상품과 콘텐츠를 연계한 월간 기획물이다. LF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쌍둥이 자매, 형제, 반려동물, 은퇴한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상 속 가족들의 스타일링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기획물은 매달 하나의 에피소드로 공개된다.

추후 고객들의 사연을 댓글로 모집해 출연시키는 방식으로 기획전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LF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SK바사 “미래 성장위한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발표 3분기 매출 616억, 영업손실 396억 R&D·생산 인프라 확장 투자 집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16억원, 영업손실 3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잠정 공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의 주요 이유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손꼽았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만 총 3건의 글로벌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회사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인수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00억원이다. 또 미국 유망 바이오기업인 선폴라워, 피나바이오솔루션 등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추가 비용을 지속 투

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R&D 및 생산 인프라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글로벌 R&PD 센터를 건립 중인데, 이를 위해 총 325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백신 공장 ‘안동L하우스’의 증축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수준의 생산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3분기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비 또한 매출 대비 49.7%에 달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초 인수 절차를 완료한 IDT바이오로지카의 실적은 오는 4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반영됨에 따라 매출 및 자산 등 본격적인 외형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동국제약, 위탁생산으로 생산력 확대

스킨앤스킨과 전략적 제휴 MOU

동국제약과 화장품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스킨앤스킨이 화장품 사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사는 ▲동국제약 화장품의 스킨앤스킨 위탁생산 ▲스킨앤스킨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신규 화장품 공동 개발 ▲양사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 기획 및 개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의 공동 유통 및 마케팅 활동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스킨앤스킨은 LG생활건강의 지정 OEM 업체로 이미 검증받은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 스킨앤스킨은 국내 화장품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강화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스킨앤스킨의 기술력과 동국제약의 브랜드 파워가 향후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KT&G

KT&G, ‘상상 블루 파빌리온’ 공모전 개최

KT&G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지역 폐기물을 재활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공모전 우수작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T&G의 대학생 참여 플랫폼 ‘상상 유니브’에서 기획한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36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8개 팀은 페타이어, 폐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형물 제작에 나섰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최종 선발된 팀의 작품 심사한 결과 ‘이면지(한양대)’팀이 대상, ‘Paran(상명대)’, ‘블루투스(가톨릭대)’, ‘M&M’s(광운대)’, ‘S.E.P(경성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GEERATION(가톨릭대)’, ‘상부상조(전남대)’, ‘아키토리(계명대)’는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작에 선정된 8개 팀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20일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오는 27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 전시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0 | 해질 / 17:42

10월 25일(금) 음력 : 9월 23일

수도권 날씨 10~23°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5/22, 동두천 6/22, 가평 5/22, 파주 6/21, 서울 10/23, 양평 7/22, 인천 12/22, 수원 10/22, 용인 10/22, 평택 8/23, 백령도 14/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